

numbers 제 82호



주요 내용

2021. 01.29

- 이번 주 주제 : [2021 한국 교회에 대한 국민 인식]
-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신뢰도 32%에서 21%로 급락'**
- 최근 언론보도 통계:
[한국인의 갈등 의식]
- 국민의 절대 다수(90%), '우리 사회 갈등 심각하다!'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기독교 통계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신뢰도 32%에서 21%로 급락’

며칠 전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1년간 코로나19 확진자 감염원에 대한 발표 자료에 의하면 교회발 확진자 수가 전체 감염자의 11%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사중’ 확진자수는 제외). 그런데 이와 관련 최근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국민들은 교회발 확진자 수가 전체 중에서 평균 44%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와 큰 차이가 난다. 한국 교회 신뢰도가 작년 연초에 기윤실에서 32%로 발표했는데, 정확히 1년이 지난 시점 올해 1월에 조사한 결과는 21%로 무려 11%p가 하락했다.

교회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한국 교회의 대국민 이미지가 실제보다 더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82호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얼마나 큰 인식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비개신교인이 한국교회에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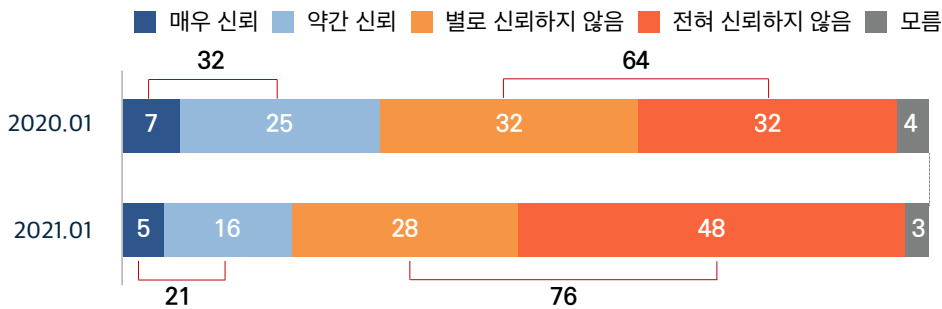
1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신뢰도 32%에서 21%로 급락!

-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에 측정한 한국 교회 신뢰도가 32%였는데, 1년 후인 2021년 1월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한 한국 교회 신뢰도는 21%로 1년간 무려 11%p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교회가 신뢰도에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그림] 한국 교회 신뢰도 변화(2020.01 vs 2021.01) (%)



*자료 출처 : 기윤실, '2020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2020.01 (일반 국민 1,000명, 전화면접 조사, 2020.01.0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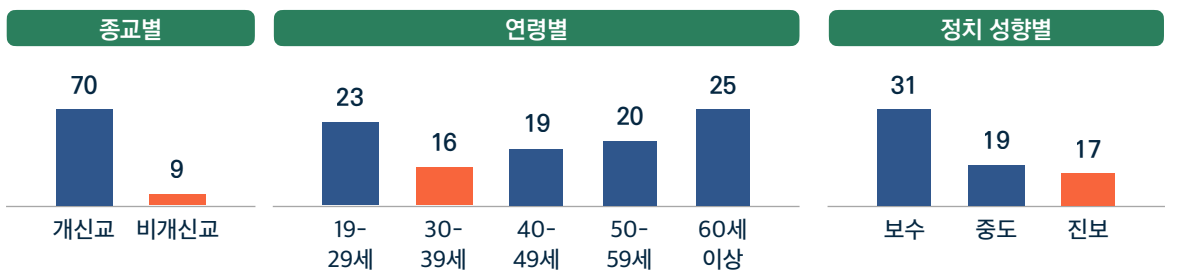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정부방역조치에 대한 일반국민 평가 조사', 2021.01 (일반 국민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01.12.~15.)

***Note : 2020.01 조사는 전화면접 조사, 2021.01 조사는 온라인 조사 방법 임에 유의할 것

● 비개신교인의 한국 교회 신뢰도, 9%

- 한국 교회 신뢰도를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개신교인'은 70%, '비개신교인'은 9%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개신교인'의 한국 교회 신뢰도가 10%도 안 되는 상태로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전도와 선교 활동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한국 교회 신뢰도 변화(계층별)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정부방역조치에 대한 일반국민 평가 조사', 2021.01 (일반 국민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01.12.~15.)

2



확진자 중 교회발 감염 비율, 실제는 11%이나 국민은 44%로 과장되게 인식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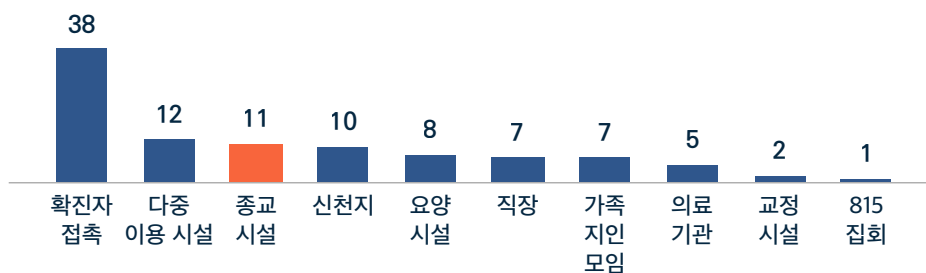
- 지난 1월 21일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1년간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보도하였는데, 교회발 확진자 비율은 전체 감염자 중 11%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사중’ 확진자 수는 제외).
- 이와 관련 실제 국민들은 교회발 감염 비율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중 교회발 확진자 수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국민들은 교회발 확진자가 전체의 44% 정도 된다고 응답하였다. 실제와 무려 4배 가량 과장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한국 교회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언론 대책에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다.

[그림] 코로나 19 확진자 중 교회발 확진자 수 비율 (%)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정부방역조치에 대한 일반국민 평가 조사', 2021.01 (일반 국민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01.12.~15.)

[그림] 정부 발표 : 코로나19 감염자의 경로별 비율
(2020.01.20.~2021.01.19. 까지의 합산 비율, ‘조사중’ 수치는 제외) (%)



*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1.01.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발생현황(정례브리핑)'

** 다중이용시설 : 체육/여가시설, 교육시설, 일반음식점/카페, 다단계/방문판매, 유흥시설, 목욕탕/사우나, 군부대관련, 기타다중이용시설

Note) 질병관리청 보도자료(6p)에는 집단감염 비율만을 제시하였으나, 여기서는 확진자 접촉도 포함하여 비율을 다시 계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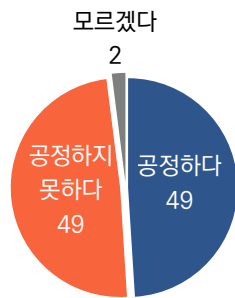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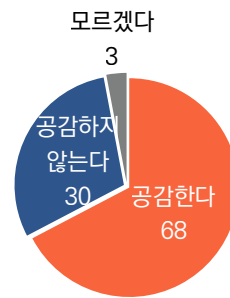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당국 조치, 국민 절반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

-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방역 당국의 조치가 얼마나 공정한지 질문한 결과, ‘공정하다’ 49%, ‘공정하지 못하다’ 49%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영업적 손실을 본 것과 관련, 헌법소원 등의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 이상(68%)이 공감한다고 응답한다.

[그림]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당국 조치의 공정성 평가 (%)



[그림] 영업 피해에 대한 헌법소원 등 자영업자의 항의에 대한 공감도 (%)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정부방역조치에 대한 일반국민 평가 조사', 2021.01 (일반 국민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01.12.~15.)
 ** 긍정 부정 응답 모두 (매우+약간) 합한 수치임(4점 척도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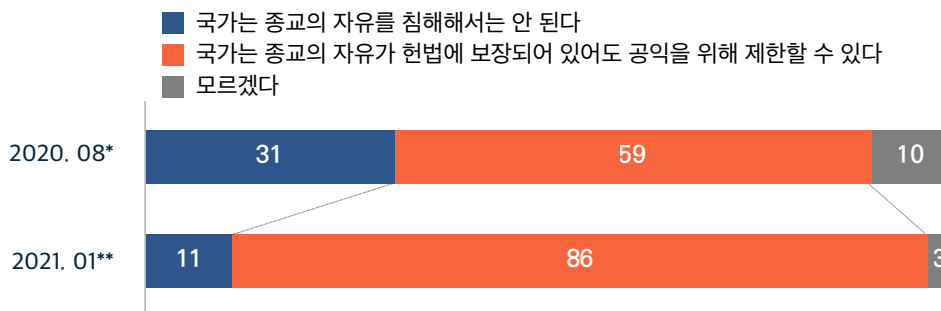
4



‘종교의 자유, 공익 위해 제한할 수 있다’ 2020년 8월 59% → 2021년 1월 86%로 대폭 상승!

- 코로나19 기간 중 개신교 내에서 논란이 됐던 종교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알아보았다.
- 그 결과,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지만, 대부분의 국민(86%)은 공익을 위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응답은 작년 8월 조사 때 59%였는데, 3차 유행기인 1월에 크게 상승한 수치이다.

[그림] 국가와 종교 관계에 대한 의견 (%)



* 자료 출처 : 예장합동교단, '코로나19 이후 교회생태계 지형 변화 조사'(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8.13.~20)
 **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정부방역조치에 대한 일반국민 평가 조사', 2021.01(일반국민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01.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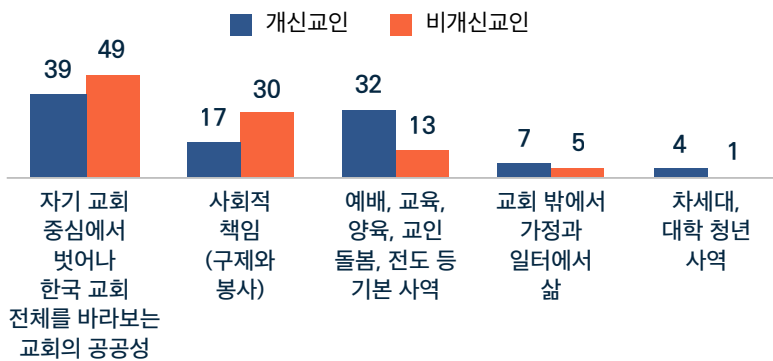
5



향후 한국 교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 1위, '자기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교회의 공공성'

- 향후 한국 교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로 '자기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교회의 공공성'을 '개신교인'은 39%, '비개신교인' 49%가 응답해서 교회의 공공성 회복이 가장 큰 과제로 드러났다.
- 2위 응답에서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차이가 보이는데, '개신교인'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예배, 교육, 양육, 교인 돌봄, 전도 등 기본 사역'(32%)을 응답한 반면, '비개신교인'은 '사회적 책임(구제와 봉사)'(30%)을 응답해 주목된다.

[그림] 향후 한국 교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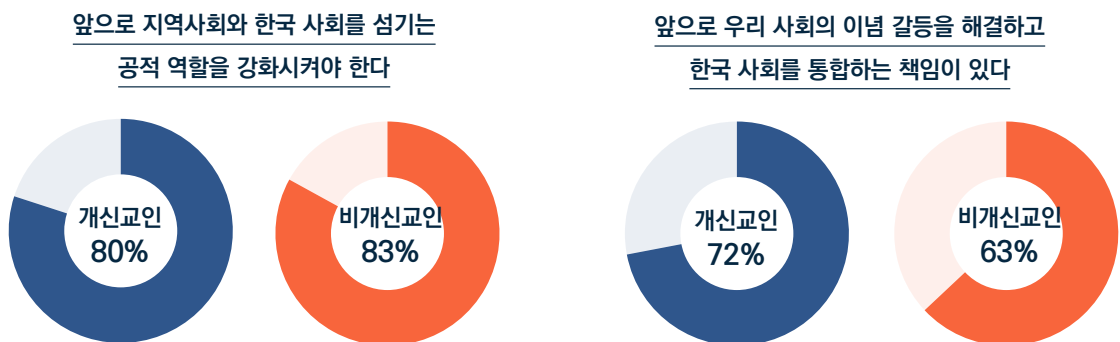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정부방역조치에 대한 일반국민 평가 조사', 2021.01(일반국민 1,000명, 온라인조사, 2021.01.12.~15.)

●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한국 교회에 바라는 사항 - '지역사회와 한국 사회를 섬기는 공적 역할'과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해 달라!'

- 한국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 '지역사회와 한국 사회를 섬기는 공적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개신교인'의 80%, '비개신교인'의 83%가 '그렇다'고 응답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대부분이 한국 교회의 공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 또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60% 이상이 한국 교회가 사회 통합에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한국 교회에 바라는 사항 '그렇다' 비율(개신교인 vs 비개신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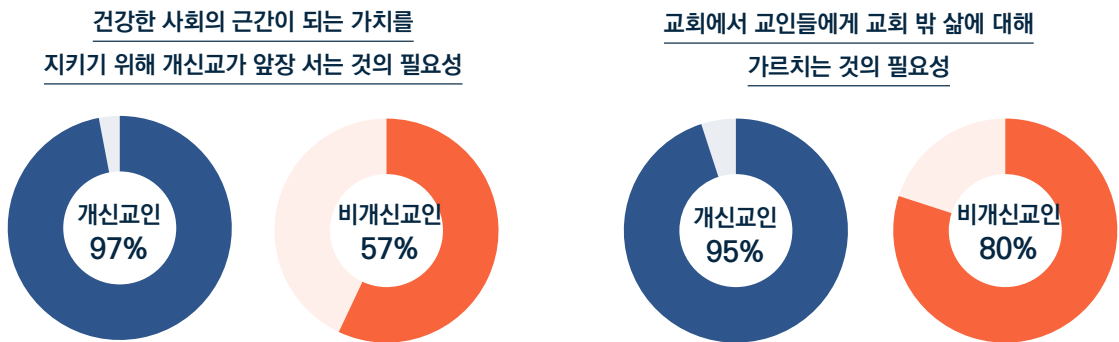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공교회 및 한국교회의 공적역할에 대한 여론조사(개신교인 및 비개신교인 비교)' (개신교인 1,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1.27.~12.07.)

** (매우+약간) 합한 수치임(4점 척도 문항)

● 건강한 사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개신교가 앞장서는 것 ‘필요하다’ : ‘개신교인’ 97%, ‘비개신교인’ 57%

- 생명, 가정, 도덕, 윤리 등 건강한 사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개신교가 앞장서는 것에 대해 ‘개신교인’의 97%, ‘비개신교인’의 5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사회적 책임감이 훨씬 높지만, ‘비개신교인’도 절반이 넘게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어 실제 이러한 개신교 행동들이 실추된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교회 밖 삶에 대해 가르치는 것에 대해 ‘개신교인’의 95%, ‘비개신교인’의 80%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교회는 교회 밖 ‘비개신교인’들의 요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림] 교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개신교인 vs 비개신교인)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공교회 및 한국교회의 공적역할에 대한 여론조사(개신교인 및 비개신교인 비교)’ (개신교인 1,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1.27.~1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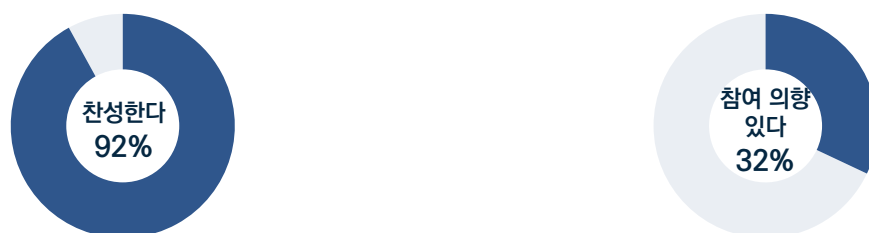
** (매우+약간) 합한 수치임(4점 척도 문항)

● 대부분의 개신교인(92%), ‘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찬성한다’

- 교회에서 지역봉사, 가정상담실, 취미교실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절대 다수(92%)의 개신교인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사역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비개신교인들에게 집 근처 교회에서 워킹맘을 위한 미취학 아이돌봄서비스, 노인학교, 가정상담실, 취미교실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했는데, 3명 중 1명 정도(32%)가 참여 의향을 밝혔다. 개신교에 거부감이 큰 비개신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참여 의향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찬성(개신교인)

[그림] 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 의향(비개신교인)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공교회 및 한국교회의 공적역할에 대한 여론조사(개신교인 및 비개신교인 비교)’ (개신교인 1,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1.27.~12.07.)

** (매우+약간) 합한 수치임(4점 척도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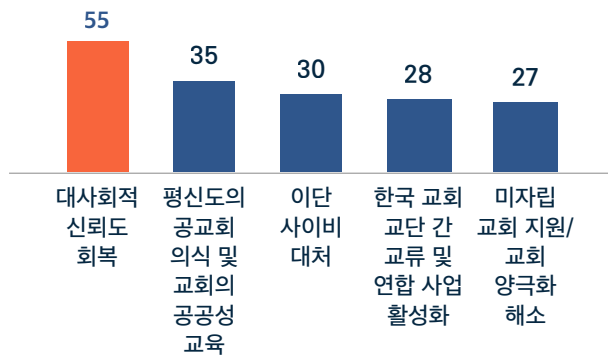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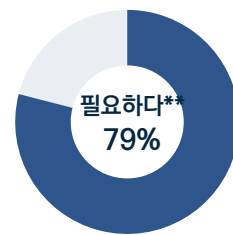
한국 교회 연합 기관의 우선적 사역, ‘한국 교회 신뢰도 회복’ 55%

- 한국 교회 연합 기관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역으로 개신교인들은 대사회적 신뢰도 회복을 1위로 지적해, 낮아진 신뢰도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 개신교인들에게 한국 교회 연합 기관에 대한 통합 리더십 구축이 필요한지 질문한 결과, 대부분이 ‘필요하다’(79%)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한국 교회 연합 기관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역 (개신교인, 1+2위, 상위 5위) (%)



[그림] 한국 교회 연합 기관을 하나로 묶어 통합 리더십 구축의 필요성(개신교인)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공교회 및 한국교회의 공적역할에 대한 여론조사(개신교인 및 비개신교인 비교)' (개신교인 1,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1.27.-12.07.)
 ** (매우+약간) 합한 수치임(4점 척도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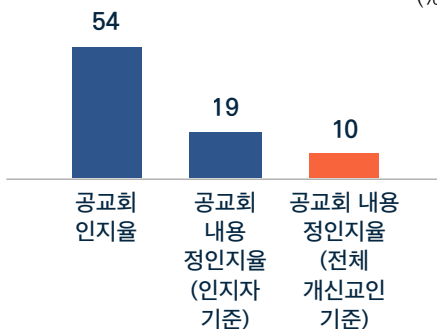
7



개신교인, 공교회 정인지율(정확하게 아는 비율) 10%

- 개신교인에게 사도신경의 ‘공교회’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54%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에게 공교회의 의미로 알고 있는 내용을 주관식으로 응답하게 하고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들 중 19%만이 공교회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 이 정인지율을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환산하면 10%로, 우리나라 개신교인 가운데 ‘공교회’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10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공교회 인지도 및 정인지율(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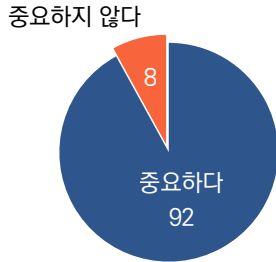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공교회 및 한국교회의 공적역할에 대한 여론조사(개신교인 및 비개신교인 비교)' (개신교인 1,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1.27.-1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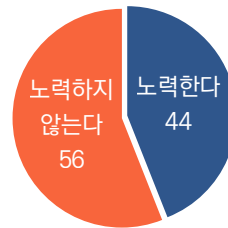
● 개신교인, '교회의 공교회적 역할 중요하다' 92% '한국 교회, 공교회적 역할 노력한다' 44%

- 절대 다수의 개신교인들은 교회의 공교회적 역할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실제 한국교회가 공교회적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노력한다' 44%, '노력하지 않는다' 56%로 부정적인 평가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림] 교회의 공교회적 역할 중요도 (%)



[그림] 한국 교회 공교회적 노력 정도 (%)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공교회 및 한국교회의 공적역할에 대한 여론조사(개신교인 및 비개신교인 비교)' (개신교인 1,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1.27.~12.07.)

** 긍정 부정 응답 모두 (매우+약간) 합한 수치임(4점 척도 문항)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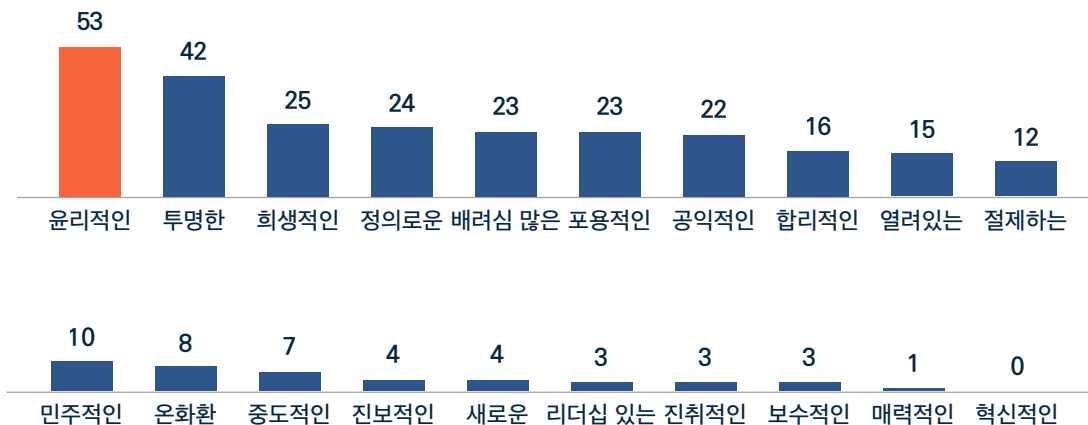


비개신교인이 원하는 개신교인 이미지, → '윤리성과 공익성'

- 비개신교인에게 종교 관련 이미지 단어 20개를 제시한 후, 본인이 원하는 개신교 이미지를 선택하게 했는데,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이 '윤리적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투명한'이었다. '희생적인', '정의로운', '배려심 많은', '공익적인', '포용적인'이 이어졌다.
- 한편 '온화한', '중도적인', '리더십있는', '진보적인', '새로운', '진취적인', '보수적인', '혁신적인', '매력적인'은 우선 순위가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이념적인 이미지는 모두 하위권으로 밀린 점이 주목된다.
- 종합하면, '윤리성'과 '공익성'이 개신교에 대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비개신교인들이 원하는 개신교인 이미지(1+2순위)

(%)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공교회 및 한국교회의 공적역할에 대한 여론조사(개신교인 및 비개신교인 비교)' (개신교인 1,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1.27.~12.07.)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의 여러 분야가 위축되었다. 그 가운데 교회의 위축도 매우 크다. 교인들의 교회 생활이 위축되면서 개인 신앙생활의 위기가 닥쳐 왔고, 교회 헌금이 줄어들면서 소형 교회는 생존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교회 내적 활동의 위기도 위기이지만 더 큰 위기는 교회에 대해 일반 국민이 혐오의 대상이라고 할 정도로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3쪽 참조). 한국 사회에서 전도의 대상인 비개신교인은 교회에 대해 그 누구도 긍정적 이미지를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당분간 '전도'가 어렵겠다는 불안감이 크다.

실제 교회발 감염자 비율이 11%인데 국민들은 44%라고 인식하는 이 격차는 왜 발생했을까? 혹자는 언론의 편향적 보도 때문이라고 해서 책임을 언론에 돌린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교회 자체의 문제 그리고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서 빚어진 문제라고 보는게 더 타당할 것이다. 우선은 코로나19 1차 유행의 주인공이 '신천지'였는데 국민들 보기에는 신천지가 교회의 한 분파 정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의 확진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2차 유행의 중심에 사랑제일교회가 있었고, 3차 유행에서는 최근 경북 상주 BJT열방센터에 이어 IM선교회까지 대량 확진자가 교회 및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였다.

그런데 더 기본적인 이유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가뜰이나 불안했던 교회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다보니 그것에 대해 더 주목하고 그래서 실제 이상으로 교회발 확진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식과 사실의 격차를 언론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의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언론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일반 국민은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듣기 때문에 언론이 국민 인식 형성의 절대적인 영향자이다. 지난 1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깨달은 점이 있다면 언론을 상대하는 데 미숙한 점이 많았다는 점이다. 차제라도 한국교회 대표적인 연합 기관을 중심으로 언론을 상대하는 '대언론 상설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 교계 지도자들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

지금처럼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교회가 진심을 가지고 교회 본연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행동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교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통합되고 장기적인 실천을 제시하고 이끌어 주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전체의 흐름을 벗어나려고 하는 일부 교회나 교계 단체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성당이나 사찰이 코로나19 방역대책을 통일된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톨릭이나 불교가 개신교보다 중앙의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개교회주의에 기초해 있어서 개교회와 교계 단체를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교회나 교계 단체는 기독교가 존망의 기로에 서있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개교회주의에서 벗어나 교계 지도력을 세우며, 그 지도력의 권위를 받아 들이는 자각이 없이는 교회가 이 사회에서 '좋은 종교'로 자리잡기 쉽지 않다. 모두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국민의 절대 다수(90%), '우리 사회 갈등 심각하다!'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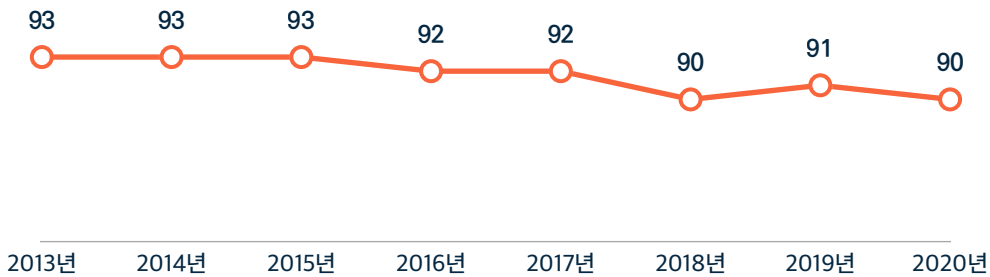
한국인의 갈등 인식 조사



국민의 절대 다수(90%), ‘우리 사회 갈등 심각하다!’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2020 한국인의 공공 갈등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대 다수는(90%)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 특히 최근 8년간 같은 조사 결과 그 수치가 90%를 웃돌았는데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아,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갈등 ‘심각하다’(2013~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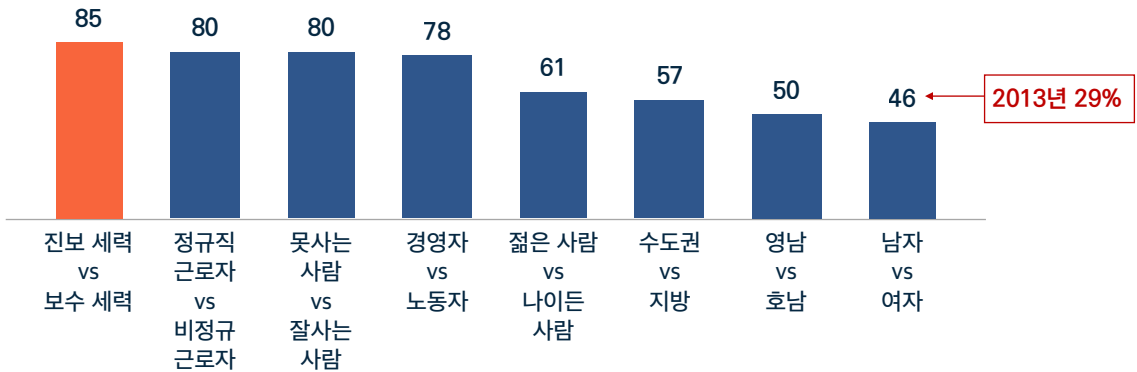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한국리서치, ‘2020 한국인의 공공갈등 인식조사’ 2020.01.13.(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0.12.24.-28)

● 사회적 갈등 중 ‘정치 이념 갈등’이 가장 심각!

- 집단별 갈등 심각 정도로는, ‘진보 세력 vs 보수 세력’을 85%로 가장 높게 꼽아 우리 국민은 정치 이념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8년간 남녀 간 젠더 갈등의 심각성 인식이 제시된 집단 중 가장 크게 상승했는데, 2013년 29%에서 2020년 46%로 무려 15%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갈등 ‘심각하다’(2020년, 주요 집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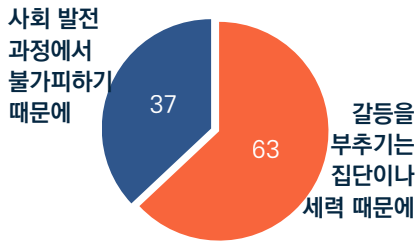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한국리서치, ‘2020 한국인의 공공갈등 인식조사’ 2020.01.13.(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0.12.2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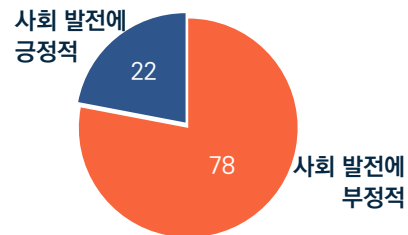
● 집단 간 갈등, '갈등을 부추기는 집단이나 세력 때문에 발생한다' 63%

- 집단 간 갈등 발생과 관련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어느 것에 동의하는지 질문하였는데, '부추기는 집단이나 세력 때문에 발생한다'는 의견이 63%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3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78%)이 사회 갈등이 사회 발전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는데, 사회 갈등에 대한 우리 국민은 민주 사회의 저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집단 간 갈등 발생 인식 (%)



[그림] 집단 간 갈등의 사회 발전 영향 (%)



*자료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한국리서치, '2020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0.01.13.(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0.12.2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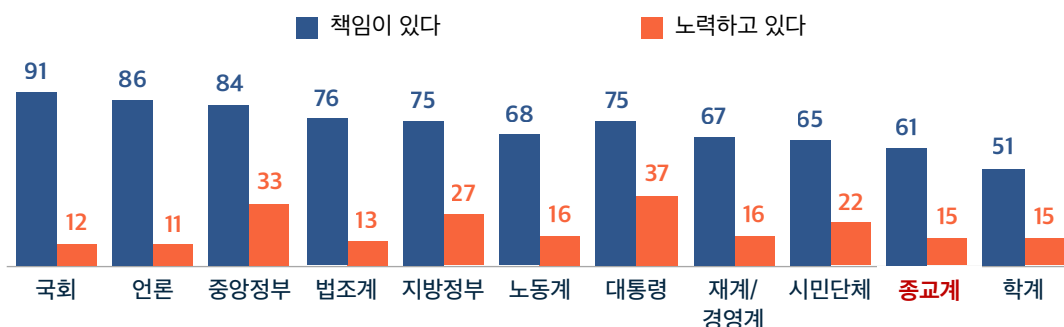
2



사회 갈등의 책임, '국회'(91%)가 가장 높아!

- 주요 사회적 주체 11개 집단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 갈등에 대한 책임 정도를 물어본 결과, 91%의 국민이 국회가 사회갈등에 '책임이 있다'고 인식해 국회를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책임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언론' 86%, '중앙 정부' 84% 등의 순으로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정도로는, '대통령'이 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앙정부' 33%, '지방정부' 2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국회, 언론, 법조계는 사회 갈등에 따른 책임은 높다고 인식했지만, 노력 정도는 낮게 인식했다.
- 11개 집단 중 종교계의 사회 갈등 책임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다' 61%, 갈등 해소 노력에 있어서는 '노력하고 있다' 15%로 나타나 11개 집단 중 하위권에 위치해, 사회 갈등 책임과 갈등 해소 주체로서 종교계의 역할은 다른 집단에 비해 미미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사회 갈등의 책임 정도와 노력 정도(11개 집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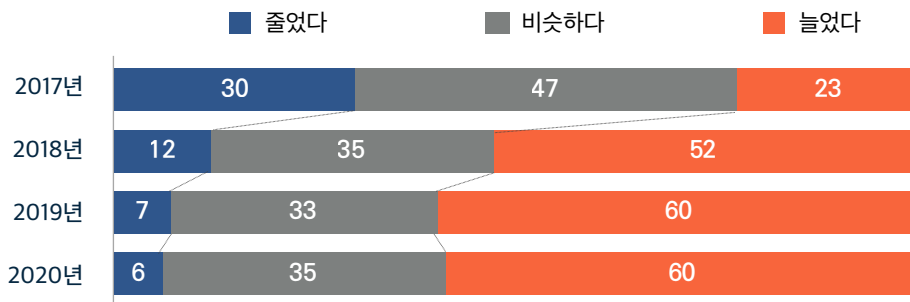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한국리서치, '2020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0.01.13.(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0.12.24.-28)

●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 대비 '갈등 늘었다' 60%

-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부 집권 첫 해에는 이전 정부보다 사회적 갈등이 '줄었다'는 응답이 30%였으나, 집권 2년 째는 12%로 급락했고, 작년에는 6%로 매우 낮게 응답했다.
- 반면, '늘었다' 응답은 문재인 정부 집권 첫 해 23%에서 2년 째 52%로 치솟았고 작년에는 60%로 나타났는데, 국민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에는 사회 갈등 관리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나, 점차 국민의 비판적,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이전 정부 대비 문재인 정부 갈등 증감(연도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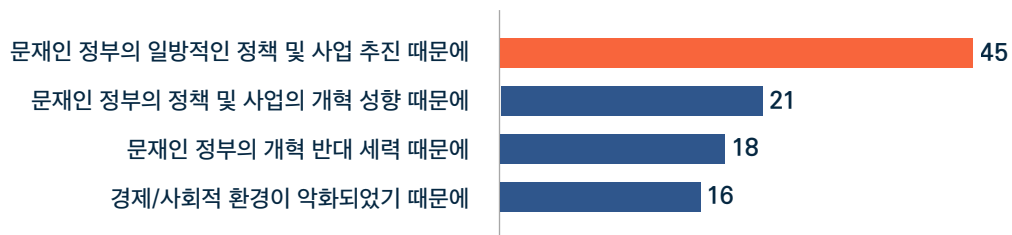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한국리서치, '2020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0.01.13.(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0.12.24.-28)

● 문재인 정부 때 갈등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일방적 정책/사업 추진 때문에' 45%

- 문재인 정부 때 갈등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일방적 정책/사업 추진 때문에'가 45%로 가장 높았고, '정책 및 사업의 개혁 성향 때문에' 21%, '개혁 반대 세력 때문에' 18%, '경제/사회적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1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갈등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갈등이 '늘었다' 응답자) (%)



*자료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한국리서치, '2020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0.01.13.(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0.12.24.-28)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사
회
일
반

[미스트롯2 사랑의 콜센타,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1,2위 휩쓸어](#)

조선일보_2021.01.25.

[한국 지방인구 유출 OECD 평균 '두배'](#)

농민신문_2021.01.20.

[신생아 0, 0, 0 ... 우리 마을이 사라진다](#)

중앙일보_2021.01.23.

[주식 투자서, 교보 베스트셀러 사상 첫 종합 1위](#)

조선일보_2021.01.23.

['돈 내고 이런 숙소에...' 이주노동자 주거권 외면이 부른 비극](#)

한국일보_2021.01.25.

교
육

[원격수업 때 얼마나 소통? 학생·학부모와 교사 인식 격차 컸다](#)

한겨레_2021.01.28.

[코로나 중에도 사교육 참여율 증가\(사교육 실태\)](#)

매일경제_2021.01.27.

경
제

[블룸버그 '韓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 G7 진입..사상 최초'](#)

뉴스1_2021.01.25.

['로봇 1대 늘 때, 일자리 0.1%p 줄고, 실질임금 0.3%p 하락'](#)

한겨레_2020.01.27.

[경제적 양극화 - 월급 모아도 자산 축적 어렵다](#)

중앙일보_2020.01.27.

[세계 28개국 근로자 조사_ 일자리 불안, 고립감...세계 노동자들 삶의 균형 무너진다](#)

한겨레_2020.01.25.

코
로
나
1
9

[코로나 감염 1억명 넘겨... 세계 인구 1.3%가 고통](#)

동아일보_2021.01.27

[코로나 여파에 정신과 진료인원 급증... 20대 여성 22% 증가](#)

조선일보_2021.01.25.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코로나 19

[코로나19 백신 접종 태도와 일상생활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한국일보_2021.01.28.

[코로나로 더 좁아진 취업문... 대기업 65% "채용 줄이겠다"](#)

조선일보_2021.01.27.

[한번도 취직 못한 2030 '사상 최대' 32만명...코로나禍 '잃어버린 세대' 나오나](#)

조선일보_2021.01.25.

[코로나19 영향...임금 불평등 커졌다](#)

경향신문_2021.01.25.

['코로나 1년' 수도권 자영업자 가장 많이 줄어...6만8천명 ↓](#)

연합뉴스_2021.01.25.

국제

['10년내 가장 재앙적인 글로벌 위험 요인 1위 전염병'](#)

연합뉴스_2021.01.24.

[바이든 첫 지지율 60% 중반...4년 전 역대 최저 트럼프 '압도'](#)

머니투데이_2021.01.26.

이슈 큐레이션

["급할땐 써야" "화수분 아냐"... 코로나 재정대응, 누구 말이 옳은가](#)

한국일보_2021.01.25.

['문재인 보유국' 시대, 합리적 유권자는 존재하는가](#)

중앙일보_2021.01.28.

넘버즈 칼럼

코로나19 시대 교회학교 위기 이렇게 극복했다!

남궁원 목사
일산광림교회 교회학교 담당

코로나19로 인해 교회학교의 출석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환경 속에서 다음세대 사역의 방향과 방법이 많이 바뀌었음을 깨닫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 또한 학생들을 못 만난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교회의 관심과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는 '온.거.무 프로젝트'였다. 온라인 거룩한 무브먼트!!! 학생들에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강조했던 슬로건이 있었다. "Online과 Offline의 공통점은 'line'입니다. 우리는 이 'line'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온.거.무 콘텐츠는 '아무찬양', 'MY Name', 'Familia Photo 심방', '믿음의 씨앗'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 '아무찬양'은 유행하던 아무 노래를 개사해서 담당 목사인 필자가 선생님들의 집 혹은 일터에 찾아가 선생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이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 유튜브를 보고 자신들도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주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다.

'My name'은 예배실 안에 학생들의 의자마다 300명의 이름을 붙여서 학생들의 이름을 부른 후, 축복기도를 해주었는데 이 모든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

'Familia Photo심방'은 담당교역자인 필자가 학생들이 다니는 익숙한(familiar) 거리로 찾아가서 가족(Familia)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밟고 축복하는 영상을 담았는데, 총 78개의 지역을 다녀왔다. 학생들은 자기가 익숙한 곳에서 목사님이 그 땅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서 삶의 공간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씨앗' 프로젝트가 4주간 진행이 되었는데, 300개 화분을 사서 그 화분마다 학생들의 이름을 붙이고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들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렸다. 학생들은 왜 예수님이 믿음을 씨에 비유하셨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실험을 통해 알게 되었고, 학생들을 만나는 대면 예배 때, 이 화분들을 직접 전달해 주었다. 이 모든 것은 유튜브 채널명 '드림트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 콘텐츠를 진행할 때는 항상 말씀과 접목시켜서 진행하여 학생들이 재미와 기대감 그리고 관심과 사랑 플러스 은혜까지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는 심방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3분심방'과 '사골심방'이다. '3분심방'은 3분 카레에서 힌트를 얻었다. 3분 카레는 영양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당장에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는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심방할 때, 손 편지와 정성이 담긴 간식을 챙겨서 우체통에 넣고 문자를 보냈다. 학생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교회의 사랑에 감동하게 된다. 또한 사골은 깊이 우려내야 진국이다. 그래서 '사골심방'은 한 번 만나면 몇 시간이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티칭보다 리스닝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다.

코로나 이후 '사골심방'은 제약이 많지만 '3분심방'은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어서 학생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는데 단순하고 강력한 효과가 있다. 온.거.무(online)와 3분심방(offline) 등의 'line'사역을 통해 코로나19 첫 대면예배 때 재적의 60% 이상 학생들이 교회에 출석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는 2021년을 맞아 '코로나19 시대 교회학교 위기 이렇게 극복했다.' 2막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한 끝에 하나의 콘텐츠를 준비했는데, 바로 S.P.A.R.K이다. 이는 Spirit Physical, And, Real, King의 첫 머리말을 딴 용어이다. '운동화신은 뇌'라는 책을 통해 얻게 된 아이디어인데, 학생들에게 뇌의 촉진제 즉 'SPARK'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운동이라고 설명하면서 공부하기 전에 운동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 커리큘럼을 현재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재미있고 유쾌한 운동을 통해 학업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올리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코로나 시대 교회학교를 운영하면서 한 가지 경험한 것이 있다. 교회학교가 코로나19 대처를 어떻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고민만 하기보다 다음세대 사역에서 무언가를 하는지 안 하는지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늘의 전략과 지혜가 임할 것이라 확신한다.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이름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재)기독교선교햇불,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트로인, (주)하츠,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영선, 이완중,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 홍혜숙(가나다순)

신규 후원 | (재) CBS, 광주다일교회, 대구내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예장통합교단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 하나마을교회 | 김윤환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1-68호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바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함께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 의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교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을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실업률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중증 소외감을 느낀다'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현황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식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 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대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 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자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 올 추석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 제 65호 |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우리 국민 추석, '부담/여려 더 큼' 60%
- 제 66호 |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 제 67호 |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 전년 대비 38% 증가,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 만 명으로 역대 최대!
- 제 68호 | 트로트 전성시대!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생활의 변화 '체중 증가/운동량 감소',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유튜브' 1위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69호-79호

- 제 69호 |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은 개신교인' 증가세! | 전 세계 국민의 86%,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원해! | 미국인,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역대 가장 높아!
- 제 70호 |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지도', 19%만 공교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 우리나라 임상 의사수, 인구 1,000명 당 2.4명으로 OECD 31개국 중 29로 최 하위권
- 제 71호 | 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 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 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 '2030세대' 57% 차지!
- 제 72호 | 남성 육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89%) '필요하다' | '코로나 불안도' 61%,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불안감 보임
- 제 73호 | 우리 국민, '비혼 출산 찬성' 31%, '비혼 동거 찬성' 60% | 올해 한국인, 작년보다 '신체-정신 건강 모두 나빠졌다!' | 조직의 리더로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질 1위, '책임감' 54%
- 제 74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 제 75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 제 76호 | 국내 기업 2개 중 1개 재택 근무 실시 → '코로나19가 기업 문화를 바꾼다!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83.3세, 전년 대비 0.6세 증가 | 한국인 45세 때 1,484만 원으로 최대 흑자, 59세부터 적자 인생으로 전환
- 제 77호 | 코로나19 시대, 기부 금액 감소 기부 중단율 높아져! | 코로나 크리스마스, 미국인 4명 중 1명 '작년보다 성탄절 예배 참석 줄일 것' | 성인 남녀 10명 중 9명, '송년 모임 취소했다'
- 제 78호 | 2020년 넘버즈 Top 8
- 제 79호 | 올해 말 자영업자 25만 가구 현금 바닥 예상(유동성 위기)! |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선 후보 지지도 평균(전화면접 조사 기준), '이재명' 23%, '이낙연' 17%, '윤석열' 17% | 코로나 장기화로 코로나블루 상승, 전국민 62% '우울하다'
- 제 80호 | 전국의 아동 학대, 13분마다 1건씩 신고되고 있어! | 1월 초, 국민이 생각하는 일상 회복 수준, '코로나 이전의 40% 수준'
- 제 81호 | 빅데이터로 본 2020년 한국 교회 4대 이슈 | 2020년 상위 20% 가구 순자산, 하위 20%의 '167배!' | 60대 이상 고령층, 10명 중 3명만 '건강 상태 좋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햇볕회